

## 종이 한 장



이 도 환  
서울 강서스테이크 부장

때는 1964년 이른 봄, 부산시 수정동 고관 입구에서 친지집에 다니오는 길에 낫선 이국인이 종이 한 장을 아무말없이 그냥 주고 가기에 저도 무심코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필요한 종이를 호주머니에서 꺼냈을 때, 생전에 처음 보는 12글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무슨 이름이 그렇게도 낯지 그것이 저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휴지로 버리기엔 무의심하게 저의 심금을 깊숙히 끌어주는 “말일성도” 네 글자,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종이 가 필요하여 꺼냈을 때 “말일성도” 이 네 글자가 왜 그렇게도 저의 마음에 강력히 작용하였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이리기를 몇 차례, 저는 드디어 그 네 글자에 강력히 이끌리어 돌아오는 중스로 교회당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암흑속에 헤매던 저의 심령의 심지에 불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표시된 부산 지부(부산 1와드), 동구 지부(부산 2와드)의 두 약도가 분명했으며, 저의 집에서 가까운 대신동 부산 지부를 스스로 찾아가, 장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참으로 어려운 경황하에서, 4개월간의 구도자 생활을 거쳐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우

주를 다 준다해도 “말일성도” 네 글자와 바꿀 수 없습니다. 수 천억의 현금과 고관 대작의 직위라도 제가 소유한 맴기세택 신권과 비길 바가 못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말일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댓가를 치르고 쟁취한 말일성도란 칭호입니까? 어떤 연유로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질까? 말일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며,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먼 곳에 교회가 있어도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라면 꼭 참석해야 합니다. 차를 두 번 타고 다섯 번을 타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임 시간이 오후라고 해서 변명이 안됩니다. 커피 한 잔 홍차 한 잔 맥주 한 모금이라도 틈과 기회를 주면 안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도자를 지지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자신의 축복이요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와 국법 준수, 봉사와 희생 정신, 근면과 절제, 정직과 진실함, 겸허한 자세와 덕성, 투철한 선교 사업의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날의 가정 복음을 내일로 미루면 안됩니다. 금주의 방문 교육을 내주로 미루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20년 내에 이나라 이땅에 천 개의 스테이크를 만들 때까지 조금도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합당한 모든 청년들은 모두 복음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간행된 모든 서적을 탐독하고, 매월 성도의 벗을 빠뜨리지 말며 신학 연구원 대학부와 중등부 세미나리에 열심히 참석하고 배워서, 뿌리를 깊은 곳에 내리고 반석 위에 주초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단합할 때 못할 일이 없고 두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금년이라도 열 개의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부산, 부산 서 스테이크 대회



뒷열 좌: 이 병학 형제, 뒷열 우: 최 창덕 형제, 앞열 좌: 박 남수 형제, 앞열 중앙: 도 길회 스테이크 부장, 앞열 우: 이 동원 형제.

지난 해 11월 20일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제2와드에서 총관리 역원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를 감리자로 '82년도 후반기 부산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이날은 특별히 또 하나의 스테이크가 탄생하는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새로 조직된 부산 서 스테이크 부장으로서는 부산 스테이크 축복사로 수고하였던 도길회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제1보좌에는 진해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였던 박 남수 형제 그리고 제2보좌에는 제1와드 감독단에서 수고하던 이 동원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한편 집행 서기는 영도 와드 감독으로 수고한 최 창덕 형제가, 서기로는 이 병학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이튿날 부산 서 스테이크는 도 길회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대신 와드에서 첫번째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과 스테이크의 각 보조 조직 회장들이 지지되었으며 고등 평의원들과 감독의 말씀이 있었다. 도 길회 스테이크 부장은 주님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아울러 성도들이 참된 신앙으로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새로 조직된 부산 서 스테이크의 모든 회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

## 서울 스테이크 송년 무도회

서울 스테이크 독신 성인 위원회에서는 '82년 12월 30일 청운 와드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무도회를 가졌다.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한 이날 모임에는 5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게임을 하고 음식을 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비록 적은 수의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였지만 높은 표준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모임이었다. 1983년 송년 무도회에서는 더욱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여 우정을 나눌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

## 새로 조직된 스테이크 부장단 및 변경된 스테이크 부장단 소개

### ☀ 강서 스테이크 부장단



이도환  
스테이크 부장



이광정  
제 1보좌



홍현길  
제 2보좌

### ☀ 영동 스테이크 부장단



박재암  
스테이크 부장



서희철  
제 1보좌



배영천  
제 2보좌

### ☀ 청주 스테이크 부장단



함충열  
스테이크 부장



민동근  
제 1보좌



장병순  
제 2보좌

### ☀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



김창선  
스테이크 부장



최동현  
제 1보좌



김욱  
제 2보좌

### ☀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단



홍무광  
스테이크 부장



송평중  
제 1보좌



전종철  
제 2보좌

### ☀ 인천 스테이크 부장단



허채  
스테이크 부장



홍장석  
제 1보좌



홍유남  
제 2보좌

## 서울 지역 신권 지도자 부부 '83년 신년 교례회

1983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청운 와드에서 서울 지역의 신권 지도자 부부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교례회를 가졌다. 서울 지역 대표인 이호남 장로가 사회를 맡은 이날 모임에서 각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은 신년 목표와 아울러 자랑거리 2가지씩을 이야기하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서로 나누며 화기 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모임은 서울 스테이크에서 준비한 다과를 함께 나누며 더욱 무르익었다. 스테이크가 분리되어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신권 역원들은 이날 모두 반가운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한 해를 축복해 주었다. \*

## 서울 서 스테이크 안양 와드 기공식

1982년 12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스테인 안양 와드 예배당 기공식이 서울 지역 대표인 이호남 장로를 비롯하여 김창선 스테이크 부장 외 60여 명의 내외 귀빈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영 감독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안양시 안양 2동 848-2번지에 아담하게 세워질 안양 와드 예배당은 대지 300여평에 건평 147평의 현대식 건물로 1983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이호남 장로는 허채 인천 스테이크 부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인천 스테이크는 안양 와드가 서울 서 스테이크로 편입되었음에도 약속된 건축 기금을 완납했기 때문이었다.

## 청주 스테이크 제2회 리아호나 성료

지난 해 12월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청주 스테이크 아론 신권 및 청녀회 주최 제2회 리아호나가 선화 와드에서 막을 올렸다. 1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이번 예술제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무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예배실을 무대로 사용하였다. 백두현 대홍와드 감독은 격려사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시설들은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될 수 있으며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명랑하고 건강한 청소년이 되줄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성시 낭독에 이어 권인충 형제와 정경순 자매의 무언극은 참석한 형제 자매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김경수 형제 외 11명이 출연한 연극은 초기 성도들이 폭도들을 피하여 서부로 이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표현하여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또한 갈매기 떼가 나타나서 메뚜기를 잡아 먹는 광경은 인상적이었다. 끝으로 고익환 형제는 고별시를 낭독하여 막을 내렸다. 이날 특히 무대 조명을 맡은 선화 와드의 송은영 형제는 특별한 조명을 해주었고 음향 효과는 이상길 형제가 잘 해주어서 모임을 더욱 빛내주었다. \*

